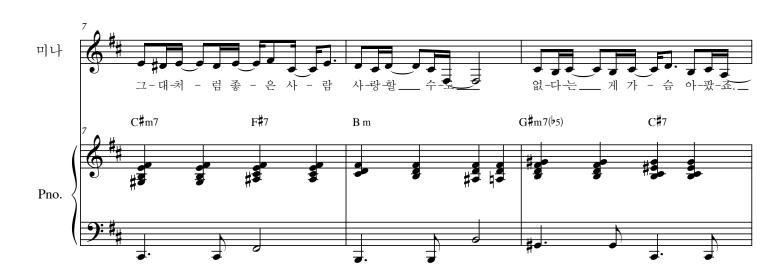
22. 마이 스케어리 걸 D/Gb/G

Lyrics by Kyoung-Ae Kang Music by Will Arons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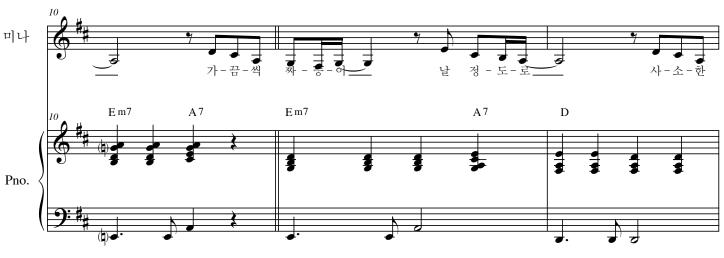
(대우, 미나에게서 등을 돌리며 암전. 마이 스캐어리 걸이 시작되고, 미나와 대우의 그리움의 몽타주가 시작된다. 미나의 방. 짐을 싸며 대우에게서 받았던 스카프를 가슴에 안는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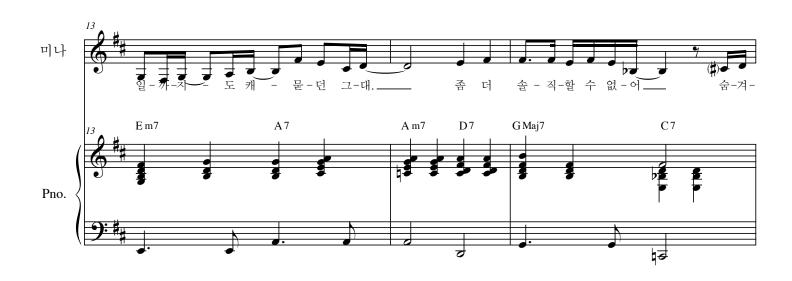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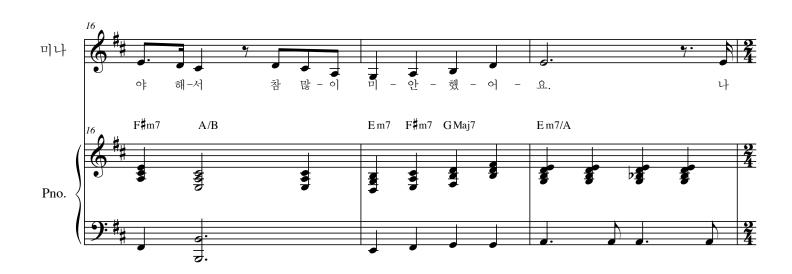




(암전. 조명이 다시 들어오면, 산 속에서 미나가 시체를 파묻고 있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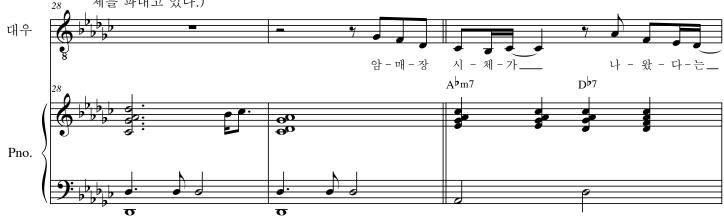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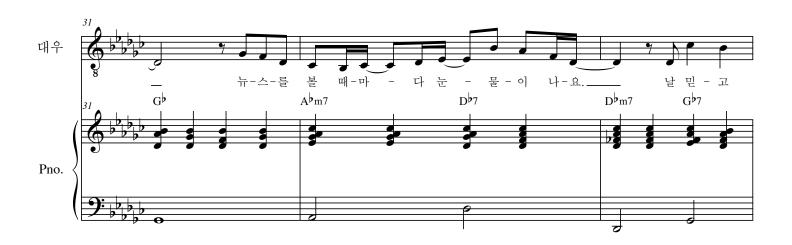






(공항, 미나 뒤를 한 번 돌아본 뒤, 이태리로 떠난다. 암전. 조명 다시 들어오면 대우의 방. 대우가 시체 토막 살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뉴스를 보며 울고 있다. 그와 동시에 무대 뒤에서는 장미가 드디어 토막 난 시체를 파내고 있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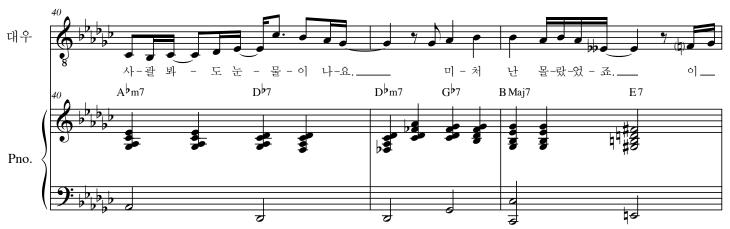






(암전. 조명 들어오면, 대우, 사과를 쥐고 울먹인다. 동시에 뒤에서 장미가 경찰에 시체를 보여주는데, 경찰이 장미를 체포한다. 장미, 몸부림을 치며 끌려간다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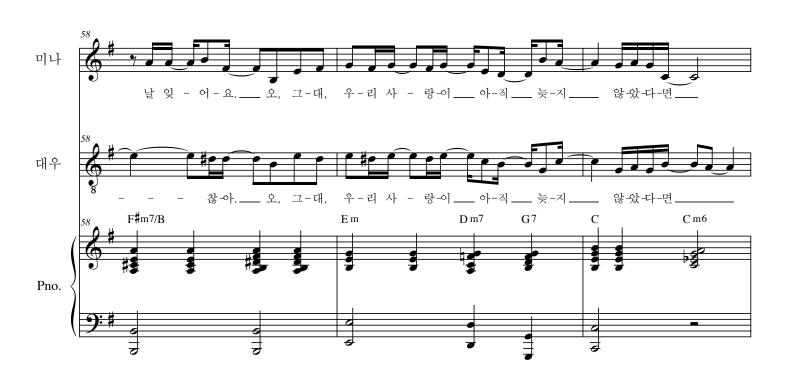


(대우, 사과를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한다. 암전. 조명 들어오면 대우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다.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, 대우는 이탈리아 거리에서 열심히 미나를 찾고 있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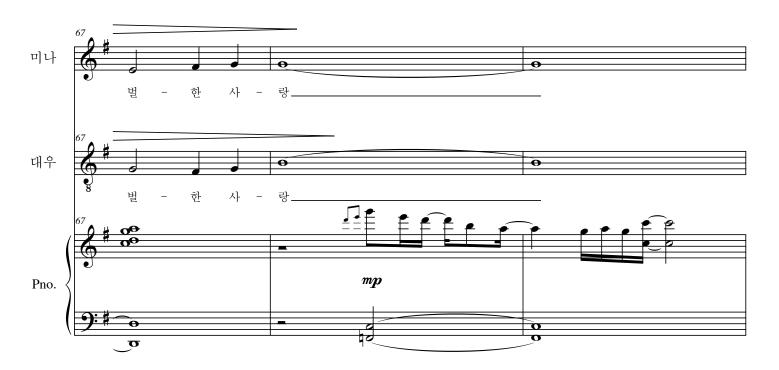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대우 우리 또 만났네요?

미나 네.

(그때 죽은 홍규와 죽은 계동이 합동으로 대우의 다리를 건다. 그때 미나, 대우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다. 서로를 보며 웃음 짓는 두 사람)

